

코로나19 확진자 동선정보의 모호성 차이가 유관 상권 방문의도에 미치는 영향 연구: 강남구민과 서초구민의 비교

민동원
단국대학교 경영학부 부교수

The effect of ambiguity of information on Covid-19 patients' contact trace on intention to visit the commercial district: Comparison of residents in Gangnam-gu and Seocho-gu

Dongwon Min
Associate Professor, Business Administration, Dankook University

요약 본 연구는 코로나19 확진자 동선에 대한 지자체의 정보공개의 모호성 차이가 해당 지역상권에 대한 소비심리에 미칠 수 있는 영향에 주목하였다. 특히 상대적으로 정보공개 방식이 모호한 강남구와 상세한 서초구의 거주자들을 대상으로, 해당 구가 발표하는 코로나19 확진자 동선의 모호성 판단이 확진자 동선 인근의 상권 방문의도에 미치는 영향을 조사 및 분석하였다. 그 결과 거주지 인근에서 발생한 코로나19 확진자 동선에 대한 정보가 모호(vs. 상세)하다고 느낄수록 불안감이 높았으며, 이는 유관 상권에 대한 방문의도를 낮추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 같은 차이는 각 구에 따라서도 유의하게 나타났다. 한편 연령과 성별이 미치는 영향은 유의하지 않았다. 이 같은 결과를 기반으로 소비심리의 장기적 변화, 내재된 불안감의 영향, 거주자와 비거주자 간 차이 등을 담은 향후 연구의 시사점을 제시하였다.

주제어 : 코로나 19, 정보 공개, 모호성, 불안, 방문의도, 강남구, 서초구

Abstract This study aims to investigate the effect that local government's information release range on Covid-19 patients' contact trace on consumer sentiment in the region. One hundred twenty-eight residents of Gangnam-gu and Seocho-gu participated in the study. The results showed that when ambiguity of information increased perceived anxiety on Covid-19 patients' contact trace, which in turn led lower intention to visit the commercial district near the Covid-19 patients' contact trace. Based on the findings, several suggestions was proposed for future research, including longitudinal studies covering even the "long-term" changes in consumer sentiment, the effect of implicit anxiety, and the behavioral difference between residence and non-residence.

Key Words : Covid-19, Information release, Ambiguity, Anxiety, Visiting intention, Gangnam, Seocho

*The present research was conducted by the research fund of Dankook University in 2019.

*Corresponding Author : Dongwon Min(dwmin@dankook.ac.kr)

Received June 8, 2020

Revised June 24, 2020

Accepted August 20, 2020

Published August 28, 2020

1. 서론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COVID-19, 이하 ‘코로나 19’)는 2019년 12월 중국 우한에서 발생해서 전세계적으로 급속히 전파되었으며, 국내 확진자 수는 2020년 6월 25일 0시 기준으로 12,563명(2020년 1월 3일 이후 누계)에 달하고 있다. 코로나19로 인해 대면적인 사회활동이 급격하게 줄어들면서 비대면적인 인터넷 쇼핑을 제외한 거의 대부분의 산업에서 소비가 급감하였다. 한국은행이 올해 4월 발표한 소비자동향조사결과, 소비자심리지수가 1월(104.2), 2월(96.9), 3월(78.4), 그리고 4월(70.8)로 최근 12년 만에 가장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1]. 문제는, 가계재정상황에 대한 인식을 반영하는 현재경기판단(77), 향후경기전망(79), 가계수입전망(83), 소비지출전망(87) 모두 감소세를 이어가고 있고, 특히 현재보다 앞으로 소비를 늘릴지를 보여주는 소비지출전망 지수가 역대 최저치를 기록함으로써 소비심리가 되살아나는 게 만만치 않다는 것이다.

이 같은 상황에서 본 연구는 지자체의 코로나19확진자 동선정보 공개의 범위와 동선유관 상권에 대한 소비심리 간 연관성을 살펴보고자 하였다. 2020년 3월 14일 질병관리본부는 코로나19 확진자의 증상 발생 이틀 전부터 격리일까지의 동선 중 접촉자가 다녀간 장소 및 이동수단을 공개해야 한다고 발표하였다. 그런데 각 지자체별로 제공하는 코로나19 정보 범위가 매우 상이해 이에 대한 일관성 문제가 수차례 지적되어왔다. 특히 본 연구는 서울시의 25개 자치구 중에, 서베이가 종료된 2020년 4월 13일까지 가장 확진자가 가장 많이 발생한 구인 강남구(59명)와 4위인 서초구(36명)를 중심으로, 이들이 공개한 확진자 동선정보의 내용과 전달방식이 해당 자치구 내의 상권 이용에 대한 반응에 미치는 영향을 조사하였다. 그동안 강남구와 서초구는 구 내의 코로나19 확진자 동선 정보와 관련해 공개 양상에 큰 차이를 보여왔다. 서초구는 확진자가 다녀간 곳의 상호와 시간, 그리고 방문시 마스크 착용 여부까지 매우 구체적으로 공개했지만, 강남구는 ‘신사동 헬스장,’ ‘XX역 4번 출구의 식당’과 같이 특정이 어려운 정보만 제공해왔다. 따라서 강남구 확진자가 서초구를 다녀간 경우에 강남구에서의 동선은 파악이 용이하지 않은 반면, 서초구에서의 동선은 상호명과 방문일시까지 자세히 확인하는 상황이 되었다. 그런데 양구의 거주자들은 소득수준 유사성 뿐 아니라 사실상 생활권을 공유 정도도 높고, 양쪽 구청의 긴급재난문자를 동시에 받는 경우도 다반사라서 이 같은 정보 공개양상

의 차이는 각 구 거주자들에게 더욱 극명하게 다가갈 수 있었다.

본 연구는 강남구와 서초구 거주자가 지각하는 각 구청 제공 코로나19 확진자 동선 정보의 모호성이 동선 인근의 상권 방문의도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였다. 특히 코로나19는 그 전파성으로 인해 전세계 유례없이 강력한 영향을 미치고 있고, 사람들의 일상을 크게 바꾸어 놓았으며, 빠른 확산속도 및 백신의 부재 등으로 인해 불안감 또한 높였다. 그리고 이러한 현상은 4개월 이상 지속되고 있다. 따라서 본 연구는 특별히 불안 관련한 병증이 있지 않더라도 코로나19 발생 이후 특성 불안(trait anxiety) 즉, ‘불안을 일으키는 특별한 사건이나 상황 또는 대상이 없음에도 막연하지만 지속적으로 느끼는 불안’이 사람들에게 내재되었을 가능성에 주목한다. 이러한 상황에서 거주지 인근에서 발생한 코로나19 확진자 동선 정보가 모호할 경우, 주의의 대상(즉, 확진자 방문지)이 주는 불확실함이 불안감을 높이며, 이는 결국 주의 대상에 대한 강한 기피 행동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다고 예측하였다.

2. 문헌 고찰

실제로 비슷한 종류의 사건을 경험한다고 해도 이에 대해 느끼는 긍정적 정서보다 부정적 정서가 더 주의를 유발하고, 강도를 더 심하게 느끼게 하며, 오래 지속되는 ‘부정편향(negativity bias)’은 많은 학자들의 연구대상이었다. 부정편향은 인상의 형성과 평가를 포함하여 주의, 학습, 기억, 의사 결정 등 많은 분야에서 연구되어 왔는데, 이는 부정성(negativity)의 가중치를 높일 뿐 아니라 지속성에 있어서도 유의미한 영향을 미쳐, 부정적인 정서의 경험이 중립적인 정서상태로 돌아오는 것은 긍정적인 정서의 경험일 때보다 오랜 시간을 요한다. 그리고 부정적 정보는 긍정적 정보보다 더 많은 정보 처리 자원과 활동을 요구하는데, 사람들은 긍정적인 사건보다는 부정적인 사건에 대해 더 많이 생각하고 추론하는 경향이 있다 [2]. 여러 연구들은 부정적 정보에 대해서 사람들이 더 깊이 있는 인지적 처리를 한다는 것을 보였는데, 이러한 추가적인 정보처리는 주의, 학습 및 기억에서의 긍정적 정보와 부정적인 정보의 차이로 이어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다양한 맥락에서 진행된 연구들은 사람들이 긍정적인 행동보다 부정적인 행동을 더 잘 기억하는 경향을 보였으며 [3], 피험자들에게 최근의 정서적 사건을 회상하도록 요청한 연구에서도 사람들이 긍정적인 사건을 보고하는 것보

다 부정적인 사건을 더 자주 보고하는 경향을 보였다[4].

학계에서는 이러한 부정적 정보로의 주의집중과 정보 처리 심화를 이끄는 요인 중 하나로 주의 편향 (attentional bias)에 주목해왔다. 이들은 불안이 높은 사람들은 조기인지 처리 과정에서 위협적인 자극에 대해 비정상적으로 민감하게 반응을 할 뿐 아니라 위협적인 자극을 더 잘 감지하는데, 문제는 이러한 자극에 더 비중을 두어 평가를 내리기 때문에 경계모드가 더욱 활성화되어 위협적인 자극에 대한 정보처리에 인지적 자원을 치중하게 되며, 이것이 더 높은 불안으로 이어진다고 하였다[5]. 이는 불안할 경우 주의편향으로 위협적인 자극에 더 민감하게 되고, 이는 불안 반응을 강화하는 순환 구조를 가지게 됨을 의미한다. 선행연구들은 이 같은 순환구조가 불안도가 높을 때 더 강하게 발생하지만 불안하지 않은 사람들에게도 유의미하게 나타난다고 하였다[6].

선행문헌을 토대로 본 연구는, 코로나19로 인해 불안감이 가중된 상황에서는 개인이 거주하고 생활하는 지역 내의 확진자 관련 정보에 민감도가 더 높아지고 이 정보에 대한 주의가 더 집중되며, 이에 대해 더 정보처리하려는 경향이 강할 것으로 예측하였다. 문제는 위협정보가 불확실하고 모호해서 더 해당 정보로의 주의편향이 강화되고, 이것이 더 큰 불안과 회피 반응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있다. 최근 한 연구는, 스트레스가 많은 환경에 처해있을 때 불확실하고 위협이 되는 환경에서 모호한 정보를 신속하게 해석해야 하는 문제에 직면하는 경우, 이 잠재적인 위협과 관련된 불확실성이 정서적 및 부적응성에 대한 인지 및 정서적 기능에 광범위한 영향을 미치는 정서적 각성 상태를 유발한다고 하였다. 그리고 이때 모호한 정보는 이 정보를 부정적인 방향으로 해석하는 경향을 증가시키는 것으로 나타났다[7]. 따라서 강남구의 확진자 동선정보처럼 그 내용이 모호할 경우 이 정보에 대한 부정 편향은 더욱 커질 가능성이 높다고 볼 수 있다. 더구나 생활권이 상당수 공유되는 인접 자치구의 정보공개와 극명히 비교가 되면, 강남구의 정보가 갖는 상대적 모호성이 더욱 크게 지각될 수 있고, 이 경우 더욱 불안과 부정적 추론이 커질 가능성 또한 높다. 본 연구는 이러한 부정적 반응은 각 구청에서 공지한 확진자 동선 인근의 상권에 대한 더 강한 심리적 회피로 이어질 것으로 예상하였다. 그리고 이 같은 예상을 다음의 가설로 정리하고, 이를 강남구민과 서초구민을 대상으로 조사해 검증하였다.

가설 1. 코로나19 확진자 동선에 대한 정보의 모호성은 코로나19 확진자 동선 인근 상권 방문의도에 부정적 영향을 미칠 것이다.

가설 2. 코로나19 확진자 동선에 대한 정보의 모호성은 불안감을 높일 것이다.

가설 3. 코로나19 확진자 동선에 대한 정보의 모호성으로 인한 불안감은 동선 인근 상권 방문의도에 부정적 영향을 미칠 것이다.

가설 4. 코로나19 확진자 동선에 대한 정보의 모호성이 코로나19 확진자 동선 인근 상권 방문의도에 미치는 영향을 코로나19 확진자 동선에 대한 정보에 대한 불안감이 매개할 것이다.

3. 조사

3.1 조사장소 및 참여자

조사는 2020년 4월 6일부터 13일까지 양재천의 대치-도곡-양재-서초 구간과 강남구 압구정동 현대백화점 인근, 그리고 서초구 반포동 세화여자고등학교 인근에서 이루어졌으며, 강남구민과 서초구민 128명이 참여했다. 구체적으로 참여자는, 강남구 거주자 67명(남성: 22명, 여성 45명, 평균연령: 49.94세)과 서초구 거주자 61명(남성: 22명, 여성: 39명, 평균연령: 48.20세)이었다. 조사는 3분 정도 소요되었다. 참여자와 조사자 모두 마스크를 착용하였으며, 대면으로 이루어진 조사인만큼 참여자와 조사자 간 상호작용 편향의 가능성을 배제하기 위해 단일 조사자가 조사를 진행하였다.

3.2 조사절차 및 내용

벤치나 버스정류장 등에서 머무는 중인 강남구와 서초구 거주자들을 상대로, 본 조사의 배경을 설명하고 조사 참여의사를 물은 후, 이에 동의하는 경우에 한하여 조사가 이루어졌다. 코로나19로 인해 사회적 거리두기가 진행중인 기간에 조사가 진행되었기 때문에, 참여자들이 손세정제를 이용한 소독과, 개별 펜(조사 후 참여자에게 증정), 병원용 항균물티슈, 그리고 1회용 비닐장갑 등을 사용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크리넥스 안심 물티슈(20매)가 사은품으로 제공되었다.

먼저 거주지 확인 후, 거주 구청의 안심재난문자, 홈페이지 등에서 공개한 확진자 동선정보와 관련된 질문이 이어졌다. 참여자들은 우선, 얼마나 해당 정보가 모호하다고 느끼는 지(이하, '모호성')에 대해 7점 척도에 응답했다(1= 전혀 그렇지 않다 vs. 매우 그렇다). 이후 각 거주 구청에서 공개한 확진자 동선정보에 대해 얼마나 불

안함을 느끼는 지(이하 ‘불안감’)에 대해, Loewe et al. (2010)와 Min and Park(2017)의 불안척도를 활용해[8, 9], 1. 얼마나 긴장, 불안, 또는 안절부절못하는 지와 2. 걱정을 멈추거나 통제할 수 없는 지의 정도를 7점 척도로 응답하였다(1= 전혀 그렇지 않다 vs. 매우 그렇다; $\alpha = .87$). 이어 종속변수인 코로나19 확진자 동선 인근 상권 방문의도(이하, ‘방문의도’)가 7점 척도로 조사되었다. 코로나19로 인한 국민적 불안감이 높아진 상황이고, 확진자 정보에 대한 민감도 또한 높아진 상황이라서, 일반적인 의도를 조사할 때 쓰는 촉진적(promotional) 문항 [예, 1= 전혀 XX하고 싶다 vs. 매우 XX하고 싶다] 대신 [1 = 방문을 매우 피하고 싶다 vs. 7. 방문을 전혀 피하고 싶지 않다]는 회피적(preventive) 문항을 사용하였고 이 문항은 분석에서 역(reverse) 코딩 되었다.

3.3 조사결과

종속변수에 영향을 미치는 변수들이 연속적 변수이기 때문에 이들의 효과를 검증하기 위해 PROCESS model no. 4가 사용되었다. PROCESS는 “연속변수의 매개효과를 분석할 수 있고, 기존의 매개분석이 가지는 다중공선성 등의 한계를 보완하는 부스트래핑(Bootstrapping) 테스트로, p 값 및 低 신뢰구간(LLCI: Low Level of Confidence Level)에서 高 신뢰구간(HLCI) 사이에 0이 존재하는 지 여부를 확인함으로써(예, 0이 존재할 경우 유의하지 않음) β 값 및 방향(예, 긍정, 부정)에 대한 유의도를 파악하게 된다[10; p. 94], [11].” 분석 결과, 참가자가 느끼는 모호성은 방문의도에 직접적으로 부정적인 영향을 미쳤다($\beta = -.38$, $SE = .06$, $t = -6.59$, $p < .001$, $LLCI = -.49$, $ULCI = -.27$), H1 지지. 또한 모호성은 불안감도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beta = .67$, $SE = .04$, $t = 15.69$, $p < .001$, $LLCI = .59$, $ULCI = .76$), H2 지지. 불안감은 방문의도에도 부정적으로 영향을 미쳤다($\beta = -.65$, $SE = .07$, $t = -9.34$, $p < .001$, $LLCI = -.79$, $ULCI = -.51$), H3 지지. 마지막으로 모호성이 방문의도에 미치는 영향을 불안감이 매개하는 지에 대한 분석 결과, 간접효과가 유의한 것으로 나타났다($\beta = -.44$, $Boot SE = .05$, $BootLLCI = -.54$, $BootULCI = -.34$), H4 지지.

추가적으로, 실제 강남구민과 서초구민이 각 지자체가 제공하는 코로나19 확진자 동선 정보에 대해 지각하는 모호성, 이 정보에 대한 불안감, 그리고 관련 상권에 대한 방문 의도가 다른 지와 이에 불안감이 매개했는지에 대한 분석도 진행되었다. t -test 결과, 강남구민($M = 5.47$, $SD = .71$)은 서초구민($M = 3.16$, $SD = .80$)에 비해 거

주 구청의 안심재난문자에서 나타난 확진자 동선 공개 정보가 모호하다고 응답했다.

Visiting Intention through Anxiety($t(127) = 298.43$, $p < .001$). 또한 강남구민($M = 5.35$, $SD = .45$)은 서초구민($M = 3.27$, $SD = .48$)에 비해 거주 구청의 안심재난문자에서 나타난 확진자 동선 공개 정보에 대해 더 많은 불안함을 느꼈으며($t(127) = 635.80$, $p < .001$). 거주 구청의 안심재난문자에서 나타난 확진자 동선 인근의 상권 방문의도도 낮았다($M_{강남} = 2.39$, $SD = .72$ vs. $M_{서초} = 4.66$, $SD = .60$, $t(127) = 371.55$, $p < .001$). 마지막으로 양 구민들의 방문의도에 불안감이 미치는 매개효과를 검증하기 위해 PROCESS model no. 4가 사용되었다.(강남구민 = 1, 서초구민 = -1로 코딩).

그 결과, 서초구민 대비 강남구민의 높은 불안감($\beta = 1.04$, $SE = .04$, $t = 25.22$, $p < .001$, $LLCI = .96$, $ULCI = 1.12$)과 낮은 방문의도($\beta = -.41$, $SE = .13$, $t = -3.23$, $p < .005$, $LLCI = -.66$, $ULCI = -.16$)가 유의했으며, 양 구민의 방문의도 차이에 불안감이 기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beta = -.73$, $Boot SE = .12$, $BootLLCI = -.97$, $BootULCI = -.49$).

한편, 성별과 연령의 영향은 주효과 및 이 변수를 연구 모델에 넣었을 경우의 어떤 상호작용 효과도 나타나지 않았다($p > .30$). 이는 모호성이 방문 의도에 미치는 영향에 있어 이들 변수의 영향이 유의하지 않을 뿐 아니라 모호성 및 불안감이 이들 변수와 상호연관 되어 방문의도에 미치는 영향 또한 유의하지 않음을 의미한다.

4. 결론 및 시사점

본 연구 결과, 참가자들은 코로나19 확진자 동선 정보가 모호하다고 지각할수록 해당 동선 정보로 인해 더 큰 불안감을 느꼈고, 확진자 동선 인근의 상권 방문의도도 유의미하게 낮았다. 코로나19 확진자 동선 공개 정보의 범위가 매우 상이한 강남구와 서초구의 거주자들은 이들 정보에 대한 모호성 지각과 불안함 경험, 그리고 방문의도도 상이하게 반응했다. 확진자 방문 동선 상 상호공개를 거부한 강남구의 경우, ‘자칫 확진자의 프라이버시를 침해할 수 있고 선의의 피해업소를 양산해 지역경제에 피해를 줄 수 있다’고 밝혔다[12] 하지만, “상호 공개의 목적은, 그 장소에 가지 말라는 것이 아니라, 동시간대 접촉자 혹은 그사이 그 장소를 이용한 사람들이 또 다른 사람들과의 접촉을 주의하고 본인의 상태를 좀 더 인지할

수 있게 하는 데 있다”며[12] 청와대 국민청원이 이루어졌을 만큼 지역 거주민들의 정보공개방식에 대한 불만이 컸다. 실제로 본 조사에서도 코로나19로 불안한 상황에서 거주지 유관 상권에 대해 모호한 정보만 공개하는 것은 오히려 불안감과 회피의도를 높인다는 것이 밝혀져, 과연 강남구의 정보공개 방침이 지역경제에 덜 피해를 방식이었던 지에 대해 반문하게 한다. 특히 지난 2월 23일 이후 두 달이 넘게 감염병 위기 경보 수준이 최고 수준인 '심각' 단계를 유지하는 상황에서, 생활권과 직접적으로 유관된 정보라고 할 수 있는 지역 내 확진자 동선의 상세 공개는 오히려 인근 상권에 대한 회피를 방어하는 전략이 될 수 있었을 가능성이 높다. 그런데 본 연구는, 상권을 살펴보는 데 있어 해당 지자체의 상권으로 조사했고 그 범위나 특성(예를 들어, 생필품 판매, 기호품 판매 등)까지 살펴보지는 않았다는 한계가 있다.

2020년 4월 14일 국제통화기금(IMF)은 코로나19로 인한 극심한 불확실성이 세계경제의 급격한 위축을 가져올 것으로 전망했다[13]. 이는 이전의 경제 위기와 달리 공급의 측면까지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IMF는 노동공급의 하락과 사업장 폐쇄로 인한 공급망 혼란 및 생산성 하락에 더해 실업률 상승과 유가하락 등으로 세계경제가 마이너스 3%의 경제성장을 가져올 것으로 예측했다. 이와 더불어 코로나19가 잠잠해진 후에는 내수활성화를 도모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그런데 내수활성화의 근간은 소비심리 활성화에 있고, 소비심리가 되살아나기 위해서는 일상의 안정성이 담보가 되어야 한다. 이와 관련해 많은 유수의 외신들이 한국 정부의 코로나19 정보공개를 지지하고 분석하는 것은 시사하는 바가 크다. Washington Examiner는 한국이 매일 코로나19 브리핑을 하고, 온라인으로 정보를 게시하며, 심지어 시민들에게 정책 변경 및 피해야 할 장소에 대해 문자 메시지를 보내면서 지속적으로 격리 및 완화 노력에 대해 사람들에게 조언한다며, 이러한 종류의 명확하고 투명한 메시징이 데이터 및 테스트 외에도 COVID-19(코로나19)를 물리칠 수 있다는 확신을 주고, 잘못된 소문이나 고의적인 가짜 정보에 대응하는 데 도움이 된다고 하였다[14]. 그리고 이는 공황을 감소시킨다고도 하였다. 따라서 심각한 감염병이 있을 때는, 소비심리의 위축을 방어할 뿐 아니라 회복을 위해서, 확진자 동선에 대한 상세한 정보공개가 오히려 긍정의 기능을 할 가능성이 높다. 본 연구는 이 같은 예측의 근거를 제공하는 첫 발을 디디는 것이며, 향후에는 감염병과 같은 사회의 대규모 불안유발 요인에 관한 정보 공개 방식의 차이가 소비심리의 '장기적'인 변화까지 다

루는 종적(longitudinal) 연구가 이루어지기를 기대한다.

본 조사가 진행된 첫날인 2020년 4월 6일에 보도된 코로나19 관련 주요 뉴스 중 하나는 연령에 따른 코로나19 사망률의 현격한 차이였다. 해당일 중앙방역대책본부는 이날 0시 기준으로 국내 80세 이상 코로나19 확진자의 사망률이 19.8%이며, 당시까지의 국내 누적 사망자 186명 중 80대 이상이 차지하는 비율이 약 절반인 49.5%라고 하였다. 특히 80세 이상 확진자 사망률은 연령별 사망률발표가 시작된 3월 2일에는 3.7%였으나, 18일만인 3월 20일 10.0%를 기록했으며, 17일만인 4월 6일 19.8%로 가파른 상승세를 보였다. 반면 30세 미만의 확진자 중 사망자는 확진자 연령별 현황이 조사된 이래 한 명도 발생하지 않았다(2020년 5월 5일 0시 기준으로 30세 미만 사망자 0명). 따라서 본 연구는 연령에 따라 정보공개의 모호성 지각이나 이로 인한 불안감 및 방문의도에 상이함이 있을 수 있다고 보았으나, 실제 조사에서는 연령의 어떠한 영향도 나타나지 않았다. 따라서 본 조사에서 나타난 결과는 특정 연령 또는 고위험군(즉, 고령)에서 보다 강하거나 약하게 나타난다고 볼 수 없으며, 전 연령에 적용될 가능성이 높다고 볼 수 있다. 게다가 기존 연구에서 노년층이 청년층보다 생의 남은 시간을 제한적이라 지각하며 이로 인해 보다 정서적인 측면에 가중치를 두어 정보처리를 함을 보였기 때문에[15], 코로나19로 인한 불안감이 전 연령에 고르게 크게 나타남이 나타났다는 것은 더더욱 주목할 만 하다.

한편, 본 연구에는 불안도 측정에 있어서 코로나19 발생 전에 사람들에게 내재된 불안도의 차이도 반영되지 않았다. 그런데 불안하면, 유관 정보에 주의편향이 생기기도, 또 이 주의편향이 더 불안이 유발되고 지속되는 데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 따라서 추후 연구에서 지자체 거주자와 비거주자 간 차이 및 코로나19 발생 이전에 참가자가 갖고 있는 불안도에 대한 측정과 통제가 병행된다면, 독립변수의 영향을 보다 명확하게 검증하는 데 도움이 될 것으로 본다.

REFERENCES

- [1] Bank of Korea(Apr. 2020). Consumer Survey Index.
- [2] S. E. Taylor (1991). Asymmetrical effects of positive and negative events: The mobilization-minimization hypothesis, *Psychological Bulletin*. 110(1), 67-85. DOI:10. 1037/0033-2909.110.1.67
- [3] H. Ohira, W. Winton, & M. Oyama (1998). Effects of

stimulus valence on recognition memory and endogenous eyeblinks: Further evidence for positive-negative asymmetry,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Bulletin*, 24(9), 986-993.

DOI:10.1177/0146167298 249006

- [4] C. Finkenauer & B. Rimé (1998). Socially shared emotional experiences vs. emotional experiences kept secret: Differential characteristics and consequences, *Journal of Social and Clinical Psychology*, 17(3), 295-318.
DOI:10.1521/jscp.1998.17.3.295
- [5] C. Beard, A. T. Sawyer, & S. G. Hofmann (2012). Efficacy of Attention Bias Modification Using Threat and Appetitive Stimuli: A Meta-Analytic Review, *Behavioral Therapy*, 43(4), 724-740.
DOI: 10.1016/j.beth.2012.01.002
- [6] S. Eldar, T. Ricon, & Y. Bar-Haim (2008). Plasticity in attention: Implications for stress response in children, *Behaviour Research and Therapy*, 46(4), 450-461.
DOI: 10.1016 /j.brat.2008.01.012
- [7] M. Neta, J. Cantelon, Z. Haga, C. R. Mahoney, H. A. Taylor & F. C. Davis (2017). The impact of uncertain threat on affective bias: Individual differences in response to ambiguity, *Emotion*, 17(8), 1137-1143,
DOI:10.1037/ emo0000408
- [8] B. Löwe, I. Wahl, M. Rose, C. Spitzer, H. Glaesmer, K. Wingenfeld, A. Schneider & E. Brähler. (2010). A 4-item measure of depression and anxiety: Validation and standardization of the Patient Health Questionnaire-4 (PHQ-4) in the general population. *Journal of Affective Disorders*, 122(1-2), 86-95.
DOI: 10.1016/j.j ad. 2009.06.019
- [9] D. Min & K. Park (2017). The Role of Justice Belief in Coping with Threats to Socioeconomic Status through Status Consumption, *Korean Journal of Marketing*, 32(6), 1-27. DOI: 10. 15830/kmr.2017.32.1.1
- [10] D. Min. (2016). The Effect of Psychological Disposition on Omni-Channel Shopping in the Age of Digital Convergence: Focusing on Extraversion-Introversion and Variety-Seeking Tendency, *Journal of Digital Policy & Management*, 14(1), 91-97.
DOI: 10.14400/JDC.2016.14.1.91
- [11] D. Min. & J. Kim. (2013). Is Power Powerful? Power, Confidence, and Goal Pursuit. *International Journal of Research in Marketing*, 30(3), 265-275.
DOI: 10.1016/j.ijresmar.2012.12.001
- [12] Segye.com(06. Mar. 2020). <https://www.segye.com/newsView/20200306509820>
- [13] IMF(2020. 04). World Economic Outlook.
- [14] Washington Examiner (2020. 03. 11). <https://www.washingtonexaminer.com/opinion/what-america-can-learn-from-south-koreas-coronavirus-response>
- [15] D. Min (2020), The Effects of Age and Type of Imperative Statement on Behavioral Intention and Recall, *Journal of Digital Policy & Management*, 18(1),

53-58.

DOI: 10.14400/ JDC.2020.18.1.053

민 동 원(Dongwon Min)

[정회원]



- 1997년 2월 : 서울대학교 음악대학(음악학사)
- 2001년 8월 : 연세대학교 경영대학(경영학석사)
- 2010년 2월 : KAIST 경영대학(공학박사)
- 2010년 9월 ~ 2016년 8월 : 단국대학교 경영학부 조교수
- 2016년 9월 ~ 현재 : 단국대학교 경영학부 부교수
- 관심분야 : 소비자심리, 브랜드전략
- E-Mail : dwmin@dankook.ac.kr